

촌락사회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에 관한 연구

- 어느 지주집안에 관한 구술된 역사를 중심으로 -

성 태 규*

목 차

- | | |
|--------------|-----------------------|
| 1. 연구목적 | 2) 경제적 합리성의 변화 |
| 2. 리더쉽과 사회자본 | 5. 사회적 변화와 리더쉽의 재창출과정 |
| 3. 상징자본과 리더쉽 | 1) 사회적 변화 |
| 4. 경제적 변화 | 2) 리더쉽의 재창출과정과 실패 |
| 1) 토지소유의 분산화 | 6. 결론 |

1. 연구목적

한국의 촌락사회는 그 동안 일제의 지배와 해방 그리고 토지개혁, 6,25사변, 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진행된 산업화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겪어왔다. 산업구조가 농업위주에서 공업위주의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농민들의 촌락이탈현상은 매우 심화되었고 그것은 농촌사회의 해체로 이해될 만큼 그 정도가 심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촌락사회주민들간의 사회적 관계 역시 크게 변화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촌락자치제의 붕괴였다.

조선시대의 정치구조의 전체적인 방향은 수령방백들을 지방에 파견하여 중앙집권식의 통제를 강화시키는데 있었지만 재지세력 또한 만만하지가 않았던 것이어서 실제에 있어 이들의 촌락주민들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들은 직접생산자인 농민들에게 한편으로는 착취자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자로서의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의 대소에 따라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고 때로는 자연촌락단위에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물론 공고한 경제적인 기반만으로 지역사회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상 재지세력 중에서 보다 광범하고 지속적인 정치적 연망구축은 재지사족들이나

* 영남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공고한 경제적 기반의 필요성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수건이 지적하고 있듯이 향촌사회에서 리더십을 소유했던 대부분의 재지사족들은 최소한 자족할 수 있는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면서 공고한 경제적 기반과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주자가례’대로 관혼상제를 실천하고 종족과 봉우를 접대하는 이른바 ‘봉제사, 접빈객’을 수행하려면 최소한 일정한 전지와 노비는 소유하고 있어야 했다(이수건: 1979, 5). 지역사회에 형성된 기존의 정치적 연망에 개입하거나 유지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유교적 행동강령인, 주자가례와 ‘봉제사, 접빈객’의 적극적인 실천만 하더라도 상당한 경제적 잉여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빈한한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신분제에 의해서 그 지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班家の 자손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유교적 강령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없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권력의 배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경제와 지역사회 내에서의 권력의 배분은 맞물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촌락사회 주민들은 주로 그들의 관습적 규제를 통하여 많은 부분의 갈등과 반목을 해결함으로써 촌락자치체로서의 사회적 질서를 유지해 왔으나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재지세력들의 영향력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유력한 재지세력들의 경제적 정치적 기반과 깊이 관련된 것이었다(성태규: 1995, 96-98). 다시 말하여 촌락자치체는 경제적 기반을 배경으로 하는 재지세력들의 정치적 리더십과 깊이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부르디외는 사회체계란 객관적 차이 및 계산가능한 분배의 체계이며 동시에 주체들이 서로 인식하고 비교하는 상징의 체계로 보면서 사회적 주체가 서로 인식함으로써 그들은 상징의 체계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구별의 공간이 생겨난다(정선기: 1998, 59)고 주장한다. 그는 또 한편으로 계급과 신분의 이원적 구별을 거부하면서 사회-경제적 조건과 생활양식의 상호연관된 모델을 구성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생활양식의 관계를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구별의 개념과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을 포함하는 상징자본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촌락사회의 리더십은 이러한 상징자본의 존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축적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러한 재지세력들이 촌락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 리더십을 획득하고 지켜나갔으며 그것이 촌락자치체와 어떠한 연관을 맺고 있었는가와 해방이후 촌락사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리더십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이를 살피기 위하여 본고는 첫째, 리더십 형성에 전제되었던 경제자본, 사회자본을 포함하는 여러 상징자본들의 축적과정과 성격을 먼저 살펴볼 것이며 둘째, 촌락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을 통해 이러한 자본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그것이 촌락사회의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볼 것이다.

2. 리더쉽과 사회자본

조사지는 초계 정씨 동성촌락으로 현재에도 초계 정씨들이 전체주민의 61%를 차지하고 있어 동성촌락으로서의 외형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들의 증시조인 鄭인은 고려말 경산에 입향하여 현재의 경산시 상방동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 후 그의 증손자인 禮孫이, 상방동 가까운 곳에 시장이 들어서자 자손이 부랴스러워 진다고 하여 조사지인 협석리로 그 거주를 옮겼다고 한다. 禮孫은 1520년에 태어나서 1577년에 사망을 한 인물이다. 이를 통하여 추정해 볼 때 이들의 협석리 입향시기는 16세기 중반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禮孫이 경산시 상방동에서 협석리로 거주지를 옮기고 난 후 협석리에 원래 살고 있었던 창령 성씨와 감씨들은 점차 외지로 나가게 되었고 대신에 禮孫의 자손들이 마을 앞에 위치하는 누룩 들을 차지하게 되었다(정시○談, 남 53세). 특히 禮孫의 현손인 勛은 누룩 들의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勛이 누룩들의 토지 중 많은 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 첫번째 자료는 구술자료로, 일제시대 중반까지도 이 마을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정대○의 재산이 그의 12대 조인 勛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었다는 조사지 주민들의 진술이다. 그러나 勛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가 모두 정대○ 가문으로 상속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훈에게는 인주와 예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정대○은 차자인 예주의 주손이다. 훈의 재산은 장자인 인주와 차자인 예주에게 분할상속되었으며, 정대○ 집안이 소유했던 많은 토지들은 차자인 예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정대○의 조부(元變)대에 이르러는 그가 소유한 토지가 누룩들에만 해도 7만여평중 2만평이상 이었고 남천면 소재지까지 가는데 이 집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었다는 주민들의 진술처럼 토지소유규모가 인근에서는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지주였다고 한다(정구○ 56세). 종손 집안에서는 이를 능가할 부를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보종이란 이름으로 종가를 일으켜 세울 사람도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정대○의 직계 조상들은 문중에서 절대적인 세력을 굳힐 수가 있었다(정0중, 남, 72세, 대명1리).

정대○의 집안이 협석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인 기반 외에도 또 다른 사회적인 기반이 있었다. 정대○의 직계 조상중 정대○의 9대조이며 예주의 손자인 道權은 17촌에게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다. 도권은 경산종파의 자손이 아니다. 그는 종파에서 갈라져 나간 인각파의 자손인데 인각파는 종파가 경산시 상방동에서 협석리로 입향할 때 종파와 갈라져서 옥곡으로 나갔다가 다시 옥곡에서 경산의 인각으로 분파한 파로 鄭又新이 파시조이다. 정우신은 정변호의 차자로 태어난 사람인데 그의 부친인 정변호는 임진왜란 때 형인 鄭變咸과 종제인 鄭變文과 함께 광재우 휘하에서 의병활동을 한 공적을 인정받아 김제훈도라는 벼슬을 받게 된 사람이다. 한편 정변호는 이와같은 사회적 위치를 획득함으로써 후에 옥곡파의 파시조가 된다. 그뿐만 아니라 정변함과 변호 그리고 그들의 종제인

변문은 초계 정씨 3의사로 추앙되면서 이 지역에서 초계 정씨의 위상을 크게 높인 인물들이기도 하다. 광재우와의 이런 인연으로 정변호의 차자인 정우신은 현풍의 광재우 집안으로 혼인을 하게 된다. 협석리의 예주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정도권의 처 외가도 역시 광재우 집안이다.

정태주의 외동아들이던 정도권이 협석리의 종파로 양자 입양되자 정태주의 집안은 오촌 조카로 정태주의 대를 잇게 하였다. 당시 도권을 양자로 입적시켰던 后世에게는 그의 중형제인 창세와 안세의 아들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두고 “17촌 먼양자”를 데리고 온 것은 도권의 父인 태주가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이름을 얻고 있었던 까닭이었다. 조사지 주민의 표현처럼 “씨를 보고 데려 온 것”이었다. 당시 정태주의 행적을 족보에 기재된 내용을 따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숙종 임신생(1692년)으로 영조 을사년(1725년, 영조 원년)에 사망한 사람이다. 34세라는 짧은 생애에 비해 그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효도로 부모를 섬기고 자라면서는 경학에 뜻을 두어 그 하나 하나의 행동이 유가의 뜻에 들어 맞았다. 양친이 병이 났을 때에는 斷旨하여 부의 목숨을 9개월 연장시키고 모의 목숨을 3년간 연장시켰다. 그리고 부모의 상을 당한 후에는 6년간을 여묘생활을 하였다. 경자년(숙종 사망)과 갑진년(경종사망) 양해에는 국상을 당하매 단을 설치하고 조석으로 곡을 3년간 했다. 그 돈독한 행위가 부모섬기는 바와 같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경산읍지(그러나 朝鮮各道 邑誌:364)와 이어서 속간된 삼강록에 실려 있다고 족보에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효행과 임금에 대한 충성은 당시에 최대 덕목으로써 주위 사람들로 부터 숭앙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사실상 당시 협석리 종파에는 그만한 집이 없었다고 한다. 협석리 종파의 자손 중에는 자신들이 소유한 富에 상응하는 사회적 지위를 소유하고 있었던 집안이 없었던 것이다. 경제적인 능력만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위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권위를 가질 만한 혈통이 중요했던 것이다. 이것은 경산 종파의 친족 집단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였다. 이미 종가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친족집단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한미해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거한 后世는 그만큼 대외적으로 경산종파의 울타리 역할을 감당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짊어져야만 했던 것이었다. 이와같은 명분은 가까운 친족들이 “17촌 먼 양자”를 반대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한다(정두○, 남, 75세).

한편 도권이 경산종파로 입양자 된 것은 도권의 父인 정태주의 뜻이 아니었다. 그의 대소가에서, 그의 중제의 아들인 오촌 조카로 하여금 대를 잇게까지 하면서 외동아들이던 도권을 먼 친족에게 양자로 입양시킨 것은 정태주의 뜻이 아니었다. 도권은 자신의 생부가 사망하기 바로 두 해 전에 태어난 유복자이기 때문에 입양자에 대한 결정은 그의 아버지 정태주의 뜻과는 무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정은 도권의 가까운 친족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인데, 집안의 대소가에서 도권을 양자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은 나름대로의 까닭이 있었다. 그것은 도권의 생가가 경제적으로 빈한했던 까닭으로 “탄탄한 집안”에 양자로 보내는 것이 그의 장래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도권의 생가 쪽의 생각과 경제력을 받쳐 줄만한 “씨”를 구하고자 하는 경산 종파쪽의 계산이 서로 맞아떨어짐으로써 17촌 먼 양자가 가능했던 것이다.

도권이 경산종파로 입적한 후 이 집안은 대대로 경산종파 중에서 “혼인을 가장 잘 치르는 집”이 된다. 도권의 직계 손의 혼인연망을 살펴보면 도권은 재령 이씨 재령군 이우칭의 후손이면서 광재우의 외손인 재령 이씨와 혼인하고 있으며 그의 아들인 기환은 영천에 거주하는 조선조 초 좌의정을 지낸 전주 이씨 이복의 7대손인 춘관의 딸과 혼인을 하며 그의 아들 규삼은 경주부윤을 지낸 박수홍의 6대손인 박춘협의 집으로 혼인을 한다. 그의 아들 진방은 인동 장씨 남파공 학의 7대손이며 참봉을 지낸 장한주의 딸과 혼인하며 그의 조카로 태어나 양자로 들어온 극순은 이조참판을 증직 받은 선산인 김창호의 사위가 된다. 그의 아들 경술은 영천에서 세거해 온, 경상감사를 지낸 벽진인 이상일의 집으로 혼인을 치르며 그 아랫대인 원섭 역시 영천에 세거해 온 창령인 지산 조호익의 집안으로 혼인을 치른다. 원섭의 딸 또한 영천시 도남동에서 세거해 온 광주 안씨집안으로 출가하고 있다. 원섭의 아들 이면서 정대○의 부친인 시하 또한 영천에 거주하는 영일인이며 참판을 지낸 정대임의 집안으로 혼인을 치른다. 이들이 혼인을 치른 영천의 여러 가문들은 慶尙下道에서는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집안들이다.

반상간의 구별을 통하여 사회구성원간의 계급성을 부여해 왔던 조선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회자본의 형성은 지역사회에서 리더십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부르디외는 그의 이론적 공간개념의 구성에서, 자본을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으로 나누면서 사회의 각장의 특정한 게임의 논리에 따라 특정한 자본의 종류가 필요해짐을 말하고 있다. 정대○의 집안은 대외적으로 유력한 혼인연망을 정치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회자본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하여 조사지의 친족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차별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정치적 우위를 점유해 왔던 것이다.

3. 상징자본과 리더십

부르디외는 경제적 교환이란 여러 사회적 교환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세계는 다원적 공간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그것은 경제적 생산관계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생산관계로 결정되는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사회계급이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자본을 바탕으로 사회자본을 형성한 정대현의 조상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자본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다른 친족성원들과의 구별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질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정대○의 조상들은 대대로 다른 친족들에게 “인심나는 것”을 제일 조심했다고 한다. 그들이 우려한 것은 다른 친족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이유로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를 정당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것이다. 부의 정당성 확보야말로 정대○ 집안이 촌락사회의 보호자로서 존재하는데 있어 미리 담보되어야 할 첫번째 조건이었다. 그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거주해 온 집터에 대한 명당 설은 자신들의 부를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그 집터는 마을에서 가장 명당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랫 섬들 마을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이 집터는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언덕이면서도 자리가 평평하고 넓어 매우 훌륭한 집터라는 정도는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곳이다. 가옥의 정면에서 앞을 바라다보면 주민들이 세칭 “시루봉”이라고 일컫는 금성산의 정상부가 마주 보이는데 “시루봉”이란 명칭은 산봉우리의 모양이 떡 찌는 시루와 형상이 비슷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시루봉”은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마치 “시루봉”이 정대○의 집안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마을 주민들은 인식해 왔던 것이다. 마을 주민들은 정대○의 집안이 12대째 부를 계승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시루봉”의 영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정대○의 가옥은 마을 뒷산인 대곡산 주봉의 줄기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마을의 앞산과 뒷산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실지로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정대○의 집안이 가진 부를 정당화시켜 주는 또 하나의 상징적 재화는 “동신 바우”였다. “동신 바우”는 동네어구 송정 숲 벼랑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마치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하여 “거북이 바우”라고도 부른다. 이 “거북이 바우”는 동네에 나쁜 기운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 주기도 하고, 누룩들의 풍년을 가져다주기도 하는 영험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주민들은 믿고 있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바위를 동네를 지켜 주는 신으로 모셔 왔다.

이 마을에는 이 “동신바우”를 소유하는 사람은 만석꾼이 된다는 속설이 전해 내려 왔다. 그런데 바로 이 “동신바우”는 정대○ 조상들이 대대로 소유해 왔던 밭의 한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이 밭은 토질이 척박하여 논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밭을 일구어 농작을 해왔을 정도로 형편없는 땅이었지만, 전해 내려오는 속설 때문에 정대○의 조상들은 대대로 이 “동신바우”가 있는 밭을 절대로 남에게 팔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이 소유한 부의 정당성을 합리화 시켰던 정대○의 조상들은 점차 동계와 동희의 장악을 통하여 마을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갔다. “동신 바우”는 영남대 박물관의 지표조사팀에 의하여 지식묘로 밝혀졌지만 동네주민들에게는 “영험이 있는 동신”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 “동신 바우”와 송정숲이 조성된 지역을 “신성한 곳”으로 인식해 왔다고 한다. 정월 대보름 경에는 “동신 바우”에서 동제를 지내고 그 다음날 송정숲에서 동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송정숲은 “동신바우”가 위치한 곳의 북쪽에 “동신바우”와 인접하

여 조성된 피구나무 숲으로, 송정숲 전체가 마을 주민들에게 신성공간으로 인식되어 있다. 이 송정숲은 초계 정씨들이 입향할 때 동신의 神體인 “동신 바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성하였다고 한다.

정대○의 조상들이 “동신바우”를 장악하면서 동제행사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동제와 이와 관련된 동회의 절차와 진행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제물 준비에 사용되는 비용은 동네 가가호호에서 염출을 하게 된다.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살림이 넉넉한 사람은 더 많이 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림 규모에 알맞게 정성껏 내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시대에는 못 먹고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祭費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동제의 비용을 합부로 줄일 수는 없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것은 동제를 지낸 그날 아침에 동회를 개최하는데 동회가 끝난 뒤에 그곳에서 마을 주민들이 동제에 사용한 제물을 가지고 음복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동회의 뒷풀이에 소요되는 음식의 양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노인이 있는 집에는 집집마다 음복을 돌려야 하는데 그 음식의 양도 적지 않은 것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동제를 지내는데는 무척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가가호호 염출한 돈으로는 대개가 모자랐다고 한다. 이럴 때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경비를 회사했는데 일제시대 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정대○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했다고 한다. 동네 주민들은 정대○의 집에서 동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크게 부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동신 바우”의 덕을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정대○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다.

음식의 양은 부자 집에서 얼마만큼 경비를 회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로 몇 몇 집의 회사금만으로 동제를 지내지는 않는다. 동제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깃 들어 져야 하기 때문이다. 떡과 과일 등 제물은 그 날 아침 洞會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음복을 한다. 보름날 아침 열시경이 되면 동네어구 송정숲으로 각 가구의 가구주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각 가구주들은 음복을 한다. 음복 후에는 바로 구장의 사회로 동회가 개최되는데 동회에서는 구장이 동제에 사용된 경비 내역과 지난 일년 동안의 마을의 대소사를 보고하게 된다. 구장의 보고가 끝나고 나면 주민들은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게 된다. 지난 한해 동안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시비를 가리기도 하고 마을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이 자리에 불러서 어른들이 훈계를 하기도 한다. 죄목이 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방침도 여기서 정하게 된다. 마을의 대소사에 대하여 의견이 엇갈리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노인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동회에서 젊은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한다. 특히 항렬이 낮은 사람은 나가서 이야기해도 잘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동회에 참석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거나 동네에서 어른 대접을 받는 몇 몇의 “말밥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에 한정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일가라 하더라도 “머리에 수건 두른 놈이 갖쟁이하고 마주 앉아 논다는 것”은 있기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결국 마을일이란 “말뱀서는 몇몇 사람이 이끌어 나가기 마련”이었다고 한다. 품삯을 동회에서 공론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땅 가진 부자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머슴살이하는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의견을 제시해 봤자 부자들 말 한마디에 그 의견은 묵살되기 마련이었다고 한다. 특히 정대○과 같은 지주의 의견은 바로 공론화 되어 버렸다고 한다. 결국 동회는 마을에서 “힘센 몇몇 사람”에 의해 주도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특히 조사지의 경우는 정대○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대○의 집안은 이 “동신바우”를 장악함으로써 누에 대한 정당성의 확보뿐만 아니라 동제와 동회에서 권위와 강력한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

4. 경제적 변화

1) 토지소유의 분산화

한말에 이르러 종손인 晋述은 국운이 쇠퇴해 가는 것을 한탄하면서, 안동과 태백산 기슭의 산간 촌락들을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문중의 대소사가 경제적으로 유력했던 지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진술의 아들인 용섭(현 종손 정주현의 조부)은 일제 초기에 즈음하여 “외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 종손 노릇할 수 있을 때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처가의 소재지인 영일군 기계면으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정○태, 78세).

종손이 고향을 떠나고 난 후 문중 일에 관한 많은 책임과 집안 사람들의 기대는 지파의 주손인 時夏(정대○의 父)에게 더욱 집중되게 되었다. 그 동안 누대를 거치면서 정대○ 집안은 유력한 집안과의 통혼을 통하여 대외적인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친족집단 내에서도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되었다. 정대○ 집안의 사회 경제적 기반은 조사지에 거주하는 친족들에게는 그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울타리 역할을 해 주었다. 정대○의 집안이 대외적으로 초계 정씨들의 위세를 유지해 줌으로써 다른 친족도 그 위세 속에서 소위 “행세”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은 친족집단의 성원들을 촌락 내에 구속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반면에 이것은 농업노동력을 동원하는 입장에 있었던 경제적으로 유력한 지주들에게는 노동력동원의 체계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배경이기도 한 것이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친족성원이 촌락 밖으로 나갔을 경우 그는 더 이상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고 그것은 곧 자신의 사회적 신분에 위협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정대○의 조부인 원섭(1863-1913)은 先代로부터 받은 토지를 기반으로 하여 토지소유규모를 더욱 확장해 나갔다. 정원섭은 누룩들뿐만 아니라 신석 들을 위시한 이웃 마을의 토지를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남천면 소재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집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었다”는 말은 이때부터 나온 것이라 한다.

정원섭이 토지를 비교적 쉽게 집적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을의 소작료와 고리의 장리에서 나오는 잉여 때문이었다. 당시 조사지의 소작료는 3:7제로 지주가 7 소작인이 3을 가져갔다고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원섭의 재산을 불러 준 것은 춘궁기에 소작인들에게 주는 장리에서 발생하는 이익이었다. 장리는 “춘궁기에 한 섬 먹으면 가을에 추수해서 한 섬 반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고리였다. 장리의 높은 이자는 “일가고 남이고 관계없이” 적용되었다고 한다. 한 촌로의 말을 빌리면, 그 당시에 정원섭이 재산을 모으는 상황을 두고 어른들이 말하기를 마치 “재물을 칼구리로 끌어 모으는” 것과 같았다고 했다. “논 가진 자가 논을 사 모으는 일은 땅 짚고 헤엄치기 보다 쉬웠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특히 개항후의 대외 무역 중에서 대일 무역이 상대적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수출의 품목 중에서는 농산물이 절대적이었다. 이는 지주층에게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바가 되었다. 이 당시의 경제상황을 김용섭은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개항 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수 있었던 상품의 대부분은 米 豆 皮革 金銀 등이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초기에는 牛皮와 豆類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으나, 1890년경부터는 豆類가 米穀을 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드디어는 米穀이 제 1위의 수출품목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米穀의 대량 유출은 국내의 米價를 폭등시켰으며, 따라서 상품으로서의 미곡생산은 좋은 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농촌경제는 종래에도 이미 시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농민층의 분화는 이를 통해서 촉진되고 있었지만, 개항후의 미곡무역과 농지집적의 성행은 이를 한층 더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갑오년에 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을 지주층의 농지집적으로 파악하고, 따라서 그 수습방안으로서 그와 같은 겸병자의 토지를 無田失農의 농민들에게 균분케 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음은 바로 지주층의 그와 같은 동향을 말하여 주는 것이었다.(김용섭,1972:24-27)

당시에 있어서 지주들의 농지 집적 현상은 조사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와 같은 경제적 배경 하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한다. 1905년 7월 이후로 시행된 비상특별법으로서 일본이 수입미에 대하여 수입세 15%를 적용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국내의 농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농민층의 생산의욕을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조사지의 친족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부채지주의 조사지 진출과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들의 토지 점유였다. 중일 전쟁과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1910년에 조선은

일제에 합방되었다. 이때부터 일제의 농업자본가와 일반 농민들은 조선으로 대거 이민해 오고 있었다. 일본 본토에서 건너온 이들 일본인들은 경산의 압량을 위시하여 조사지인 협석리까지 진출하고 있었다고 한다. 1920년대를 즈음하여 협석리에 최초로 진출한 일본인은 馬場 과 鶴崎라는 일본인이었다고 한다. 馬場은 경산시내에 馬場商店이라는 가게를 가지고 경산시내에 거주하면서 협석리 누룩들에 땅을 매입했고 鶴崎는 누룩들 남천 변에 땅을 매입하여 과수원을 만들고 그곳에 거주했다고 한다. 누룩들에 이들이 소유한 토지가 馬場이 20여 마지기(누룩들은 한마지기가 150평임) 鶴崎가 과수원 30여마지기였다고 한다. 입당, 압량 등을 위시한 경산지역에는 이미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고, 돈을 빌려 썼던 가난한 농민들은 부채를 갚지 못하여 눈을 빼앗기는 일들이 많았다고 한다. 협석에도 이때 일본인 고깃 돈을 사용했다가 빚을 날짜에 맞추어 갚지 못하여 빚 독촉을 받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며 이미 몇몇 사람들은 빚 대신에 눈을 넘겨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동네어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 온 누룩들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일본인에게 넘겨준다는 사실을 두고 노발대발하였으나 이를 막을 만한 다른 대책은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과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정대○의 가문은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쇠퇴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정원섭이 사망((1913년)하고 그의 아들 정시하가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집안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몰락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정시하의 심한 낭비벽과 유흥가 출입 그리고 아편중독으로 인한 재산탕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정시하가 매매한 눈은 일본인 馬場뿐만 아니라, 대구시 산격동에 세거해 온 달성인 서○국(5만석을 했다고 함) 경산 읍내에 세거해 온 아전출신의 안○길, 옥곡에 세거해 온 정부자(초계 정씨 옥곡파)가 매입을 했다고 한다.(정0종,72세,대명 1리 거주). 서○국만 하더라도 1920년대 후반에 50여 마지기나 되는 누룩들의 눈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한다. 옛부터 "땅에는 동태 달렸다"고 했다. "3대 부자 없고 3대 거지 없다"는 옛말에 예외적이었던 정대○ 집안의 12대째 계속되던 富가 급기야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다.

부재지주들이 누룩들로 진출하면서 조사지의 초계 정씨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 우선 이들 눈의 소작권에 대해 매우 많은 권한을 가진 마름이 산전과 대명 2리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다. 누룩들의 일가 눈을 소작해 오던 다수의 초계 정씨들이 산전리 주민들과 대명리 주민들에게 소작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일제후기까지 산전리 주민들이 누룩들 전체 농지의 많은 부분을 소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마름은 작인들에게 있어서 "지주보다도 더 무서운 염라대왕"같은 존재였다. 이들은 소작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었고 "수"를 직접 매기기 때문이었다. 나락 "수"를 매기기 위하여 마름이 마을에 오면 소작인들은 닭을 잡고 밥을 하여 마치 "척사처럼 대접을 하였다"고 한다. 마름에게 소작인이 잘못 보이면 나락을 풍구로 불어서 나쁜 나락을

날려보내고 실한 나락만 되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수”를 대어야 하는 양이 크게 늘어나 소작인에게 돌아오는 몫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마름이 소작인을 골탕먹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나락을 되에 담을 때 발로 꺾꽂 눌러 밟는 것이다.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나락 이삭이 부서져 양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일본 순사만큼 무서운 게 마름”이라 할 정도로 마름의 권한은 소작인에게 있어 절대적이었던 것이다. 산전과 대명리 출신이 마름을 맡게 되고 소작권이 이웃 마을로 넘어 가게 되어도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유력자가 마을에는 없었다. 정대○ 집안이 몰락한 가운데 협석리 초계 정씨들을 외부로부터 보호해 줄 보호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부친인 정시하가 사망한 후(1930년) 정대○에게 남겨진 재산은 누룩들에 있는 50여마지기의 토지뿐이었다. 다른 친족과 비교해 볼 때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많은 토지였지만 이전의 재산에 비하면 철저히 망해 버린 것이었다. 정대○의 나이가 이때 32세였다. 이것은 동성촌락형성의 기초가 되었던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2) 경제적 합리성의 변화

일제시대 때, 품앗이는 조사지에서 행해진 가장 보편적인 노동력교환의 형태였다. 품앗이는 농사일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행해졌다고 한다. 특히 농작업에 있어서 품앗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주로 가족노동에 의존해 왔던 한국농업의 농업경영방식은 수도재배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집약적으로 노동력 투입을 요구하는 시기에는 가족노동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농가들은 이웃과의 노동력 교환을 통하여 바쁜 시기의 노동력 부족을 보충해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연유로 품앗이는 한국농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노동 교환 관행이었다.

일제하에서 조사지에서는 빈농들끼리의 노동력을 교환하는 품앗이가 성행하였다고 한다. 때로는 빈농들은 머슴살이를 하는 농업노동자들과도 품앗이를 조직하기도 했다고 한다. 물론 소규모의 토지를 경영하는 자작농들도 이들 품앗이에 끼어 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작농들은 대개 토지 소유 규모가 비슷한 자신들끼리 결합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고 한다.

화폐경제가 이미 본격적으로 농촌에 침투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지에서 품앗이 형태의 노동력 교환이 성행하고 있었던 것은 현금결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품앗이의 장점이 현금이 부족한 농민들에게 매우 유리한 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이미 일제시대에 조사지에서는 샴모나 머슴을 제외하고라도 농업과 같은 임금노동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급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일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현금이나 현물로 노임을 즉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조사지에서 품앗이는 모심기 작업부터 벼 수확 작업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품앗이를 많이 행한 농작업은 모심기와 논매기였다고 하는데, 품앗이를 같이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사전에 약속을 한다. 대개는 매년 품앗이를 같이 하는 비공식적인 여러 집단이 형성되어 있어서 별 다른 약속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집단의 성원들끼리 품앗이가 이루어지기 마련이었다.

품앗이는 일하는 量이 아니고 日數로 계산을 했다고 한다. 따라서 품앗이를 짜는 데는 서로간의 신뢰성이 필수적이었다고 한다. “농 일”을 하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지만 품앗이를 하는 사람들은 서로간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을 거칠게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서로간의 신뢰감에 손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에 대하여 성실성이 결여되면 작게는 같이 일하는 품앗이 꾸들 내에서 자신의 체면을 손상 당하게 되며 크게는 마을사람 모두에게 소문이 퍼져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자신과 품앗이를 같이 할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촌락내에서 남들과 어울려 살려면 특히 이와 같은 동네 평판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동네 사람들에게 불신을 받는다는 것은 촌락생활에 치명적인 일이다. 만약에 품앗이로 인해 평판이 나빠지면 다른 모든 일에도 따돌리게 된다. 촌락생활이란 복잡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품앗이란 혈연관계나 친소관계에 의해서 짜여지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한번 평판이 나빠지면 소위 “경우 없는 사람”이 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바쁜 농사철이 되면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해주는 사람을 서로 품앗이 상대로 하려고 한다. 대개 품앗이의 상대는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 품앗이를 같이 해온 사람들끼리 이루어진다. 자연히 이들과는 같이 모여 노는 기회도 많고 계를 같이 행하기도 한다. 남자들끼리는 동갑계나 친목계를, 여자들끼리는 일심회, 반지계, 그릇계 등을 조직하였다. 품앗이는 이처럼 여러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존재하게 된다. 성원들간의 신뢰성은 수년간의 품앗이 교환을 통하여 쌓아온 것일 뿐 아니라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일상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원칙상 품앗이는 1:1의 노동교환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해 줄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은 이들간에 형성된 신뢰성과 지속적인 인간관계 때문이다. 오늘 일을 좀 적게 해주었더라도 조만 간에 다른 일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의 일에 대하여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수더분하게 사는 것이 인심 얻는 일”이라고 조사지의 한 노인은 말했다. “남에게 인심을 배 풀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 나중에 다 주고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지만 그래도 남는 것은 서로간의 인정이다”는 노인의 말은 촌락생활이 평등한 호혜관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결속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 준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이 “인정”이라고 표현하는 요소이다. 품앗이의 호혜관계의 바탕은 바로 이 인정과 앞에서 말한 “경우”이다. 갑자기 품앗이 상대를 바꾼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매우 섭섭한 기분”을 주게 되며 그들간의 사회

적 관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따라서 대개는 갑자기 어떤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기거나 상대를 바꿀 경우 이익이 생길 수 있다 하더라도 험사리 품앗이 상대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할 경우 “민지 못할 사람”으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촌 이내의 가까운 친족 중에서 품앗이를 요구해 올 때는 피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럴 경우는 “집안 일”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품앗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집안사람들끼리는 서로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개는 이런 경우 많은 갈등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실제로는 품앗이가 아니라 일을 도우러 가는 것일 때는 더욱 그러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고 나면 보아야 할 일가 일을 모른 채 하면 나중에 소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싫든 좋든 가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노인은 술회했다.

일제후기로 오면서 조사지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품앗이의 성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것은 여성들의 농업노동력 진출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되었다. 여성들의 품앗이는 매우 등가적이고 계약적인 양상을 띄고 있었다. 한편 여성 노동력의 본격적인 진출은 조사지의 경제사정이 점차 어려워지게 된 데 그 이유가 있었다. 정대○ 집안의 경제가 기울어지는 가운데, 누룩들에 있는 논외 소작권이 조사지 주민들로부터 이웃 마을인 산전리 주민들에게로 많이 넘어 간 것이 조사지 주민들의 경제적 사정을 어렵게 한 직접적인 이유였다. 전술했다시피 정대○의 부인 정시하가 외지의 사람들에게 많은 토지를 팔아 넘기면서 산전리 사람들의 소작진출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초계 정씨들의 소작권이 점차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조사지 출신이 아닌 부재 지주들은, 그 동안 토지 없이 가난하게 살아 왔던 산전리 주민들이 지금까지 소작을 해 온 조사지 주민보다 소작인으로서 더욱 적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그것은 산전리 주민들이 소작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지 주민들보다 지주나 마을에게 더욱 고분고분했기 때문이었다. 초계 정씨 중에 소작권을 빼앗긴 가난한 친족들은 농업노동을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동네에서 머슴을 살거나 “농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그 후 정대○이 면직원으로 있으면서 자작농 창정계획을 이용, 산전리로 넘어간 소작권 중 상당부분을 다시 친족들에게 돌려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마찬가지였다. 춘궁기에는 “삿모”를 얻어먹고는 토지를 가진 일가 집에 모를 심어 주어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삿모”를 많이 얻어먹기 위해서는 집안의 여자들도 모심기에 나서야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지로 나가는 남자들이 많아지면서 노동력 부족현상이 보편화되어 갔고 이 기회에 여성 노동력이 모심기 작업으로 진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일제 말기로 오면서 두드러진 현상은 여자들이 모심기 작업에 동원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원래 여자들이 논에 나온다는 것은 상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일손이 점차 부족해지면서 “삿모” 먹은 집의 부인들이 남편을 도와 모심기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동기가 되어 동네의 아녀자들이 점차 모심기 때 논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동네 주민들은 “김매기

는 논에 주저앉아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하체를 보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논에는 일만큼은 남자들의 일이었지만 모심기에는 여자들이 많이 참가하게 되었다”고 술회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남편의 일을 돕기 위해 모심기를 시작했던 여성들은 자신들이 봄에 “삿모”를 먹고 그 댓가로 갚아야 할 “삿모”일 외에도, “삿모”를 준 집에서 모심기 때 일손이 모자라면 그 집에 품을 팔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 여성들도 점차 남자 “삿모꾼”과 같이 단체를 만들어 작업에 임했다.

이들 여성 “삿모꾼”들은 여러 농작업 중에서 모심기 작업만 했는데, 3명 아니면 6명씩 조를 짜서 작업을 많이 했다고 한다. 더 이상 많은 인원이 함께 조를 짜지 않는 것은 첫째는 서로의 사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둘째는 “삿모”를 할 때 “논또띠기” (한 논또는 600평)로 주인과 계산을 하기 때문에 3명 아니면 6명이 임금을 분배할 때 계산하기가 좋기 때문이다. 즉 한 사람이 하루에 모를 심는 양이 200평인데 3명이 조를 짜면 하루에 한 “논또”를 모심을 수 있고 6명이 결합을 하면 하루에 두 “논또”를 심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일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삿모를 먹은 집의 부인들 중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일을 했는데 조사지에서 모심기 때 일손이 모자라기 시작하자 이들은 자신들에게 “삿모”를 준 논 주인의 경작지 중에 “삿모”를 먹지 않은 논에도 모를 심어주고 품삿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삿모꾼” 조직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노동청부단체의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까지도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향에서는 이것이 묵인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마을에 농업노동력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조사지에서는 일제 후기로 갈수록 모심기 작업에 여성 “삿모꾼”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한다. 여성들의 이와같은 “삿모꾼” 조직은 외관상으로는 품앗이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임금노동의 한 형태였다. 결국 조사지의 여성 “삿모꾼” 조직의 활성화는 기존의 노동력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품앗이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노동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노동에서 현금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임금노동으로의 변화는 촌락사회의 지속적이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망과 촌락자치제의 기반이 함께 와해되면서 진행된 것이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촌락민들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관념의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다. 촌락자치제내에서 촌락민들은 다가치적인 교환의 통로속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였지만 촌락자치제의 와해된 상황에서 그들의 경제적 합리성은 화폐라는 일원화된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5. 사회적 변화와 리더십의 재창출과정

1) 사회적 변화

1930년대로 들면서 조사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두드러지는 현상중의 하나는 외지로의 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제는 고향의 토지에 매달리지 않아도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외부로부터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직까지는 고향의 토지에서 생리를 찾는 친족들이 많기는 하였지만 외지로 나가 돈을 벌어서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야말로 고향에 남아 있는 친족들 입장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은 친족집단 속에서 더 이상 안정을 찾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고향을 떠나면 행세할 수 없었던 종전과는 달리 이제 외부사회는 그들에게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 이미 일찍이 일본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떠난 몇몇 사람들은 현금을 고향으로 송금해서 논을 사모아 놓고 있었다고 한다. 재산을 가장 안전하게 축적하는 길은 “역시 땅에 묻어 두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제후기로 오면서 주민들의 조사지 이탈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일본이 중일전쟁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1936년은 소위 병자년 대홍수로 유례없는 흉년을 겪은 해였다. 조사지에서도 병자년 흉수 때 남천이 흘러 넘쳐 하천가에 있는 논들은 완전히 폐농을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기근 속에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하여 조사지 주민들은 송진 껍질을 벗겨 먹고 멀건 풀죽을 쑤어 먹어야 만 했다고 한다. 누룩들은 형편없이 흘러 넘쳤던 남천 때문에 제 모습을 찾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남천가에 인접해 있는 논은 하천바닥인지 논바닥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 하천범람의 피해를 입지 않은 마을 앞의 논에서 약간의 소출이 있었으나 그나마 그것도 그해 8월부터 12월에 걸쳐 일본 본토로 거두어 가 버렸다고 한다.

경제사정이 이렇게 어려워진 가운데에서 조사지 주민들의 생계유지에 큰 몫을 담당했던 것은 나무장사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전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는 다음날 새벽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대구 서문시장으로 출발을 했다고 한다. “나무 한 바리(소달구지로 한차)”를 해다 팔면 쌀 다섯 되를 구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는 도중에 순사들에게 적발이 되면 고초를 겪어야 되므로, 소여물 구이 밑에 쌀자루를 몰래 달아서 왔다고 한다. 1936년 일본이 중일 전쟁을 서두르면서 보급로 확보를 위하여 국도를 닦기 시작했는데 이 국도가 협석리 마을 바로 앞으로 나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부역에 동원되었다. 이 부역에 종사하고 받은 노임이 한달에 15원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조사지에는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이미 1930년대 초반에 돈을 벌러 오겠다고 일본으로 떠난 청년들이 십여명이나 되었다. 일찍

이 일본으로 건너간 그들이 부쳐주는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는 집을 보면서 일본행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30년대 후반에 들면서 일본으로 가서 그나마 괜찮은 직장을 잡는다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워 졌다고 한다. 괜찮은 직장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노무자로 취직하는 것에 불과했다. 1938년에 실시된 지원병제도는 1939년에 세계 제 2차대전과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 징병제도로 바뀌었다. 이제는 자의로 일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징용으로 끌려가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3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일본행보다 쉬운 것이 만주로 가는 것이었다. 당시 일본은 만주의 넓은 땅을 개간하기 위하여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가 중 이미 살길을 찾아 만주로 떠난 사람들도 있었다. 만주에는 땅이 넓어 부지런하면 살길이 생긴다는 소문이 벌써 마을에 퍼져 있었으나 정든 고향을 두고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

2) 리더십의 재창출과정과 실패

이와 같이 마을에서 사회 경제적 변화가 급변하게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정대○은 여전히 마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중심이 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몰락을 했지만 마을 내에서 정대○의 정치적 비중은 여전했는데, 그것은 정대○ 개인의 인성과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는 몰락한 자신집안의 경제적 부흥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허물어져 가는 친족집단의 부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일제하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정대○은 친족성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촉망받는 인물로 인식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는 1930년경에 남천 면사무소의 면직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면직원이란 대단한 행세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한다. 마을출신이 면직원으로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마을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배경으로 생각되었다고 한다. 친족성원들이 기대한 대로 정대○은 음으로 양으로 관공서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 주었고, 친족들의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자신의 힘이 자라는데까지는 도와주려고 애를 쓴 사람으로 친족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실지로 정대○은 남천면 면직원으로 있으면서 친족을 위하여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마을 앞으로 국도가 날 때 부역동원(한달에 15원이 지불되었다고 한다)에 친족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거나 일제 말기에 공출이 극심할 때 여러 집에 사정을 봐준다든가 하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조사지 친족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自作農 創定計劃을 이용,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누룩들의 소작권을 정대○이 다시 회수하여 조사지의 친족들에게 분배해 준 일이다. 정대○은 면직원으로서는 경력이 쌓이게 된 일제 말기에 소위 이웃 마을인 산전리와 대명리 주민들이 소작권하고 있는 누룩들의 소작권을 빼앗아 협석리 친

족들에게 배분하는 일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自作農 創定計劃은 1932년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안으로, 소작권을 농지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최대한으로 생산력을 높이고자 하여 실시한 법안이었다. 이것은 정대○이 면직원으로서 그 동안 쌓아온 경력이 바탕이 되어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소작권을 빼앗긴 산전리와 대명리의 소작인들은 매우 억울한 일이었지만 정대○과 힘을 겨룰만한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소작권을 빼앗기는 일을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순사머슴(순사 보조원)도 큰 백이라고 재고 다녔는데 농사짓는 무지렁뱅이가 면서기에게 대든다는 것은 어렵도 없는 일”이었다고 한다. 물론 대명리에 거주하는 초계 정씨들은 정대○의 보호아래 소작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정대○은 조사지의 친족들에게는 더할 수 없이 고마운 사람으로 생각되었지만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는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때가 1938년이었다. 정대○에 대한 이웃마을 사람들의 원망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초계 정씨와 타성들간에 정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상반되어 있었다. 그러나 친족을 위한 정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작할 토지마저 없어 집안 사람 집에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다고 한다.

정대○은 문중 일에도 대단한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 마을 내에 있는 경산 입향조인 정인을 모시는 동산서당을 1939년에 증건한 일이 그 중 하나였다. 일제말기 마을의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동산서당을 증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명리에 거주하는 정기섭과 정대○의 개인적인 경비 회사와 열정 때문이었다고 한다. 물론 친족들로부터 얼마간씩 경비를 거출했지만 충당경비의 많은 부분을 정대○과 정기섭이 감당하고서야 동산서당의 증건은 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정기섭은 자신의 재산을 문중 행사에 많이 회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동산서당 증건의외에도 대명리에 道心齋를 창건할 때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도심재는 대명리 입향시조인 碩權을 모시기 위해 창건한 齋舍이다. 정기섭은 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대명리의 초계 정씨의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자신의 5대祖인 五松亭 鄭始煥을 모시는 誠孝齋도 창건을 했다. 정시환은 전술했다시피 생존시에 경북 8문장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도심재를 창건한 정기섭의 집안을 대명리 초계 정씨들의 구심점이 되도록 만든 사람이었다. 정대○이 협석리에 중심인물이었다면 정기섭은 대명리 초계 정씨의 중심인물이었다고 한다.

정대○이 동산서당을 증건하는데 그렇게 열성을 보인 것은 대명리에 거주하는 支派의 활발한 문중활동에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협석리에 거주하는 종파와 재산상속문제로 고착화된 갈등관계에 있는 대명리 초계 정씨들의 이와 같은 활발한 문중활동은 종파에 속하는 친족성원들의 긴장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경제력이 뒤떨어진 협석리 초계 정씨들로서는 정대○이라는 인물이 동산서당 증건에 큰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안을 받는 정도였다. 한편 동산서당의 증건은 대명리와 협석리 초계 정씨의 공동조상

인 鄭인을 모시는 사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협석리 초계 정씨들로서도 큰 집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재실을 증진하자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먹고살기에도 힘든 데 재실 짓는다고 풀 돈이 어디 있느냐”는 등의 반대 의견이 대단히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잡음은 정대○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앞장을 서게됨으로써 해결이 되었다. 정대○의 집안이 옛날처럼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친족성원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었더라면 대명리처럼 협석리에도 재실을 또 하나 마련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정대○의 이러한 노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

한편 해방이 되면서 정대○은 남천면의 면장이 되었다. 그가 면장이 되고 난 후 친족성원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은, 1949년에 마을에 고등공민학교를 설립하여 마을사람들에게 소위 “신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정대○은 이미 일제 말기에 마을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글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해방이 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육영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우선 교실을 짓고 책상과 결상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네어구에 있는 송정 숲의 나무들을 베어 내었다. 동네의 노인들은 송정 숲이 “동신 바우”를 보호해 주는 동시에 동네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베어 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극구 반대를 하고 나섰다. 정대○은 이와 같은 반대를 무식에서 나온 소치로 몰아 부치고 이러한 무식과 미신을 타파하기 위하여 고등공민학교를 만든다는 명분을 앞세워 나갔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자 정대○의 명분이 동네 노인들의 주장을 꺾게 되었고 결국은 송정 숲의 나무들을 베어 교실과 책결상을 만들었다. 그래도 재목이 남아 이것으로는 밥상을 만들어 마을의 각 가구에다 한 개씩 돌렸다. 그러나 고등공민학교는 1년을 지탱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대○은 해방이후에 다시 한번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한다. 그 위기는 그의 맏아들인 정○두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시작한 탄광업이 실패하면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문경에서 탄광업을 하던 鴻斗가 사업에 실패를 하면서 남아 있던 토지마저도 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던 것이다. 가산이 거의 탕진된 상태에서 정대○은 6,25사변을 맞게 되었다. 당시 남천면 면장직을 수행하던 정대○은 소위 “공비”에게 협조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 전쟁이 끝난 후 이웃 마을 사람의 고발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일제시대 때 소작권을 빼앗겼던 사람들 중에 정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고 아마 그들 중의 누군가가 고발을 했을 것”이라 한다. 탄광 사업에서 실패한 홍두는 집까지 10촌이 되는 정구○에게 팔고 서울로 이사함으로써 정대○의 집안은 완전히 고향을 떠나버리게 되었다.

경제자본을 상실한 정대○은 다른 장의 상징자본을 동원하여 촌락사회에서의 리더쉽을 지속시키려 했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로 끝을 맺게 되었다. 이것은 각 장의 자본들이란 상호

관련을 맺고 있지만 다른 장의 자본으로 치환되거나 대치되지 못하는, 각장의 자본의 자율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6. 결 론

조선조 후기로 내려오면서 조사지의 초계 정씨 친족집단은 한정된 토지위에서 인구가 증가하게 되자 친족내에서도 부농과 빈농으로 분화되는, 경제적 격차가 생겨 나게 되었고 이것은 같은 초계 정씨끼리도 경제적 신분의 격차를 벌여 놓게 되었다.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성들은 부유한 친족의 경제적 배경에 의지하지 않고는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까지도 보장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친족은 부유한 자신의 친족 성원의 집으로 가서 머슴살이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도 외부사회로 나가면 협석리의 초계 정씨로 행세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부유한 친족이 외부사회에 쌓아 놓은 정치적 연망이라는 사회자본의 축적 결과였다. 조사지의 경우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은 한 유력한 친족성원에 의해서 축적된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촌락사회의 응집성 위에서 형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지에서 유력한 지주로 성장해온 정대○의 집안은 일제하로 들어서면서 경제적으로 급격하게 몰락하였다. 한 지주의 경제적인 몰락은 친족경제에 매우 심각한 변화를 주었다. 그 중에서도, 친족중의 많은 사람들이 소작권을 외지인들에게 빼앗기게 된 것은 조사지의 경제사정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직접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되었다.

한편 촌락외부로 진출한 조사지 주민들이 임노동을 통하여 현금경제와 접촉을 하게 되면서 촌락내에서도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적극적인 임노동의 등장이었다. 이것은 촌락자치제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촌락주민들의 경제적 합리성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변화속에서 경제자원을 상실한 정대○은 다른 장의 상징자본을 동원하여 강력한 리더십을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게되었다. 그것은 각 장의 자본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가치의 전이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촌락사회의 구술사는 민족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록되지 않은, 그들의 체화된 담론이며 행위의 맥락이기 때문이다. 또한 구술사는 자신들의 역사적 맥락을 제시하며 행위의 숨은 의미를 반영한다. 인류학의 객관성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행위들의 숨은 의미를 찾는 데에서 구해지기 때문이다. 자료의 객관성을 기록된 자료에서만 찾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헛된 것이다. 오히려 식자층에 의해서 기술된 내용들은 기술자의 편견과 오해에 의해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확률이 더욱 높은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구술된 역사는 구술자들의 의견대립과 수정을 거듭 거치면서 내재화된 것이며, 사실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것은 그들이 자신의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장차 그들의 행위에 맥락이 되고 사실을 인식하는 눈이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현지주민들이 상징자본을 규정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펼치는 투쟁의 전략과 그 과정은 현지주민의 행위와 문화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보고서 및 자료

朝鮮 各道 邑誌

1929, 조선 박문사.

성태규외 2인

1991, 경산의 전통문화와 마을 생활양식.

1993, 경산의 경제생활과 의생활.

초계 정씨 대종회

1980, 宗史百選, 일간 내외경제.

초계 정씨 경산종파 파보 6권

경산군 통계 연보(1985-1993)

2. 논문 및 저서

권병탁, 1987, 한국경제사, 박영사.

김병대, 1979, 한국농업의 발전이론, 대화출판사.

김용섭, 1971, 조선후기 농업사 연구Ⅱ, 일조각.

——, 1972,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 동아문화 제11집.

——, 1975, 한국근대농업사 연구, 일조각.

문병집, 1973, 한국의 촌락, 진명출판사.

석태문·이호철, 1987, 18세기 施肥法의 연구, 경북대 농학지 5집.

성태규, 1982, 농업노동력동원형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995, 농업노동형태의 변화,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수중, 1990, 한국농업생산에서의 노동조직의 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수건, 1979, 영남사림파 형성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이태진, 1989, 한국사회사 연구, 지식산업사.
- 이호철, 1978, 일제침략하의 농업경제를 형성한 역사적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사 연구 20, 한국사 연구회.
- , 1992, 농업경제사 연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장시원, 1980, 식민지하 조선의 반봉건적 토지소유에 관한 연구 -1920~3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선기, 1998, 생활양식과 계급적 취향 :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적 재생산에 관하여, 문화와 권력, 나남출판.
- 정진영, 1990, 16·17세기 재지 사족의 향촌지배와 그 성격, 역사와 현실3호.
- , 1993, 조선후기 재지사족의 촌락지배와 그 해체과정, 영남대 박사학위논문.